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 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北 메시지에 화답할까 화두 회복·통합·도약

文 대통령, 오늘 신축년 신년사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일상 회복·선도국가 도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화두'로 꼽히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선도국가' 강조할 듯
'방역·치료제 통해 코로나 극복'

北 김정은 "북남관계 회복" 보도에
文 대통령, 어떤 형태로든 답신 예상

권력기관 개혁, 중대재해기업법 등
정치권 현안·성과평가 등 입장 주목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해마다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혀왔다.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회복·통합·도약'을 신축년(辛丑年) 화두로 제시했다.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우리는 후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포함한 남북관계 관련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에서 '일체 적대행위 중지 등 근본적 문제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를 낸 만큼 문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답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 이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별사면 관련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단 판결이 나오는 것을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권력기관 개혁, 중대재해기업법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지난해 성과에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논란이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쌀가공식품 수출액 27% 증가 '역대최고'

농식품부, 작년 수출 통계실적 집계
HMR수요 증가에 총 1억3760만불

지난해 쌀가공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류 영향에다, 코로나19에 따른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수출 통계 실적 집계 결과, 쌀가공식품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26.9% 증가한 1억3760만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2018년 8930만달러에서 2019년 1억840만달러로 21.4%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증가폭이

더 증가했다.

쌀가공식품 수출 증가는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쌀가공식품시장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는 5380만달러 수출해 전년 대비 56.7% 급증했다.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돼 수출이 증가했다. 냉동볶음밥, 즉석밥 등 가공밥류 수출액은 459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2.2%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시장 등에서의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해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5530만달러, 전년 대비 53.3% ↑), 일본(1700만

달러, 전년 대비 5.6% ↑), 베트남(1270만달러, 전년 대비 9.8% ↓), 중국(890만달러, 전년 대비 11.1% ↑)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對)미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53.3% 상승해 전체 쌀가공식품 수출액의 40.2%를 차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원료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공용 쌀에 대해 특별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1만7000톤을 공급했다. 또 국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박람회인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을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엔 온라인 상담회로 진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석탄발전 감축 진행... 미세먼지 426톤, 36% 줄였다

산업부, 20~25기 가동정지 효과
"기록적 한파에도 안정적 전력수급"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석탄발전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한달 동안 석탄발전 최대 17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6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률 80%로 제한)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석탄발전기 20~25기를 가동정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러한 석탄발전 감축 운영을

< 12월 전력수급 현황 >

(단위: 만kW, 주중 피크일 기준)

구분	12.1주차 (12.1~6일)	12.2주차 (12.7~13일)	12.3주차 (12.14~20일)	12.4주차 (12.21~27일)	12.5주차 (12.28~31일)
공급능력	9012.5	9102.2	9879.5	9586.3	9929.0
전력수요	7772.2	8049.7	8513.2	8290.6	8391.6
예비력	1240.3	1052.5	1366.3	1295.7	1537.4
예비율(%)	16.0	13.1	16.0	15.6	18.3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6% 감소한 426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8년 12월에 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약 60% 감소한 약 1139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주 기록적인 한파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다"며 "국민께서 겨울을 따뜻하고 깨끗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선원임금 체불임금 해소 특별 근로감독

해수부, 설 앞두고 11개 점검반 편성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원을 지급토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

수산청별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진행된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선원법 제168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19일부터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20% 부과하고, 임금 체불 선주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美 등 세계 16개국 진출 청년들의 스토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국 등 16개국에 진출한 27명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월드잡플러스와 함께'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작품집은 전 세계 ▲해외취업 ▲인턴 ▲봉사 ▲창업 등 해외진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11월까

지 실시한 '2020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의 최종 입상작품 27편(수기부문 20편, 영상부문 7편)을 담았다. 공단은 기존 '성장스토리'에서 '성장스토리'로 공모전을 개편하고 단순한 진출 과정보다는 해외경험을 통한 성장과 꿈에 집중, 동기부여가 되는 작품을 선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모전 수기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소미 씨는 국내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로 일하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을 경험한 후, 질병의 근원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취업해 전문적인 감염병 관리 방법을 익히고, 현재는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윤대성 씨는 국내 대기업을 퇴사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청년 스타트업 자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풀어냈다.

이번 수상작품집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공지사항에서 전자책(E-Book)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